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철학사에서 인간 의식을 가장 정초적인 근거로 삼아온 사고 전통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 명제가 전제하는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과연 사유의 출발점일 수 있는가? 20세기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 자명한 전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상학과 해석학, 구조주의 및 후기 언어철학의 흐름에서는, 자아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언어적, 신체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어 이전의 세계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있다. 전통적으로 언어는 생각의 표현 수단으로 간주되었지만, 비트겐슈타인 이후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조건 자체로 이해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그의 명제는, 의미란 주체 내면의 표현물이 아니라 규약과 관습, 제도와 행위의 형식을 통해 정립된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특정한 언어적 규칙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 떠오르는 철학적 반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 세계는 무의미했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하고, 반응하며, 고통과 기쁨을 경험한다. 이는 언어에 앞선 어떤 의미의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메를로퐁티는 이 지점에서 의미는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 신체적 감각과 지각의 충돌에서 이미 현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기의 울음소리, 사물에 대한 주의, 리듬에 대한 반응 등을 언어화 이전의 ‘의미-가능성’의 표현으로 본다. 즉, 의미는 반드시 명시적 개념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감각적 지향성과 지각의 구조 속에서 살아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개념 형성의 시원이 전통적으로 여겨진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신체화된 감각의 패턴과 반복된 상호작용임을 시사한다. 인간은 사과를 ‘사과’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것을 맛보고 만지고 눈으로 따라가며, 이 감각적 일관성에 따라 어떤 지속성을 경험한다. 그 경험은 개념적으로 포착되지 않더라도, 이미 사물의 동일성을 예감하고 구별하고 반응하게 만든다. 이처럼 ‘의식’이란 고정된 주체가 지닌 내부 작용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체험적 사건이라는 것이 이들 철학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구조주의는 좀 다른 각도에서 개념 형성과 의미 발생의 문제를 다룬다. 그들은 의미란 대상 그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 내 ‘차이’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즉, 어떤 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다른 말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입장은 자아와 의미의 기원을 내면이 아닌 구조로 환원하며, 개념조차도 정태적 실체가 아닌, 차이와 반복 속에서 부단히 조정되는 네트워크의 산물로 본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의식은 사유의 주체로서 선행하는가, 아니면 의미의 장 속에서 점차 형성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관심을 넘어, 인공지능, 유아 인지 발달, 정신병리 진단, 언어습득 이론 등과 긴밀히 연결된다. 만약 의미가 감각-지각-관계적 체험을 통해 발생한다면, 언어 능력의 부재가 곧 사고의 부재를 뜻하지 않으며, 사고는 언어적 기술 이전에도 생겨날 수 있다. 반대로 언어의 규칙과 차이 속에서만 의미가 형성된다고 본다면, 언어 이전의 사고는 그저 무규칙한 반응의 집합일 수 있다. 이처럼 언어, 감각, 사고, 의미는 각각 독립된 충돌라기보다 서로 구성적 관계에 있는 복합적 현상들인 셈이다.

각-지각-관계적 체험을 통해 발생한다면, 언어 능력의 부재가 곧 사고의 부재를 뜻하지 않으며, 사고는 언어적 기술 이전에도 생겨날 수 있다. 반대로 언어의 규칙과 차이 속에서만 의미가 형성된다고 본다면, 언어 이전의 사고는 그저 무규칙한 반응의 집합일 수 있다. 이처럼 언어, 감각, 사고, 의미는 각각 독립된 충돌라기보다 서로 구성적 관계에 있는 복합적 현상들인 셈이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이 사고를 전제한다’는 고전적 관점은, 언어 이전에도 개념 형성이 가능하다는 주장과의 철학적 긴장을 유발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단선적으로 해석될 수 없겠군.
- ②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는 입장은 언어 사용 이전의 감각적 반응을 사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메를로퐁티의 입장과 동일한 논리적 전제를 공유하겠군.
- ③ 언어 체계가 구조적 차이로 의미를 생성한다는 구조주의의 입장은 감각적 지향성에서 발생하는 선개념적 경험의 의미 형성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겠군.
- ④ 지각과 감각이 선행된다는 주장은 모든 철학 전통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전제는 아니므로, 언어 없는 감각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반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겠군.
- ⑤ 의식의 발생이 주체 내부가 아니라 관계적 체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입장은, 결국 언어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 발생 또한 불가능하다는 언어 중심주의로 회귀하겠군.

21. ‘메를로퐁티’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미란 감각이나 지각 이전의 언어 규칙에 따라 성립하며, 지각적 경험은 이미 언어로 분절된 후에야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언어는 사고를 전달하는 매개 도구에 불과하며, 의미는 명확한 논리 구조와 진리 조건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감각적 반응은 단지 생물학적 신호일 뿐이며, 해석이나 의미 형성은 반드시 의식화된 명명과 인지 구조를 거쳐야 한다.
- ④ 동일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신체의 반사행동은, 언어적 개입 이전에도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 형성하며, 이는 선개념적 의미 형성의 기반이 된다.
- ⑤ 세계에 대한 의미 지각은 주체의 내면 의식으로부터 유래하며, 외부 대상과의 관계는 그 내면적 해석에 의해 완성된다.

22. 윗글의 ①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한 언어학자는 언어 발달 초기 유아가 특정 사물을 ‘까까’, ‘멍멍’과 같은 의성어로 지칭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 언어화 이전의 표현이 특정 대상과의 정서적 반응이나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적 패턴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언어의 전(前)단계적 의미 체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표현들이 자의적인 음성 기호가 아니라 신체의 리듬, 감정, 억양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언어 구조 이전의 ‘자연 기호’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는 따라서 “언어는 감각적 의미 체계에서 파생된다”고 주장하며, 구조주의의 기호-차이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체 기반 언어 모델을 제시한다.

- ① 구조주의는 의미가 차이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된다고 보므로, 신체 감각이 직접 의미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체계 외부 요인을 과도하게 개입시키는 시도로 보이겠군.
- ② 유아의 언어 이전 표현이 감정이나 리듬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 체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구조주의의 기준에서 의미론적 정합성을 획득하지 못하겠군.
- ③ 음성 표현이 정서나 신체 리듬과 결합하여 구성된다는 설명은, 구조주의가 전제하는 임의적 기호 체계 개념과 직접 충돌 하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겠군.
- ④ 언어의 전단계적 의미 체계를 감각 기반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구조주의적 시각에서는 의미 발생의 조건을 체계 내부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을 포함하겠군.
- ⑤ 신체 리듬이나 정서적 억양도 반복 가능한 차이 구조로 체계화된다면, 그것들 역시 구조주의가 말하는 기호 작용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겠군.

**답: 1 4 5**